

宗教改革과 新文化運動

崔秉煥*

무릇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이 출현하여 보편화 과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수십년 또는 수세기가 걸립니다.

한국에서 발상된 통일교회의 사상과 이념은 짧은 연륜에 세계적 보편성의 기반 위에 완전히 세계종교로서 인류구원에 대한 강한 기대를 암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즉, 기독교가 예수 사후 3백여 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세계적 종교로 발전한 데 비해 통일교회는 불과 삼십여년 만에 2천년 전 기독교가 이룩했던 그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교회가 독특한 교회체제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같은 모든 내용은 바로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창안된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의 상실

역사는 항상 부패와 개혁을 반복하는 게 상례입니다만 오늘날처럼 혼미하고 가치관이 붕괴되어 혼란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한가닥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절망과 좌절만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학기술의 발달이 필연적으로 야기시킨 산업사회의 도태는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혼돈을 초래하여 인간본연의 도덕적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새로운 세대의 교육의 지표마저 동요를

* 동국대 대학원 철학 박사학위, 대전대 교수 철학

일으키게 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분야에 있어서도 불신과 배타성만을 조장시켜가는 경향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본 금후의 세계는 개혁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같은 상황을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까지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문선생님은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적 분위기에서 성장하던 중 1935년 4월 17일(부활절 당시 16세) 예수님과 영적으로 해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류를 불행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후 계속해서 깊은 명상과 기도생활을 해 오시다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통해 성서의 숨은 의미를 깨어냄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과 역사에 대한 궁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를 구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함은 물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종합적 사상을 담고 있는 기독교 성서에 바탕을 둔 교리인 것입니다.

문선생님은 북한에서 수차례의 생사의 고비를 넘기신 후 1950년 부산 범내골—오늘날 통일교회의 제 1의 성지—에 손수 토담집을 짓고 전도를 시작하셨으며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통일교회의 정식 명칭으로서 기독교 통일이라는 활동목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회단체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계의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하여(기독교는 唯一神敎이므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통일은 잠정적인 목표일 뿐이며 궁극의 목표는 종교통일 나아가서는 사상통일까지 이룩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뜻

이같은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선생님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선생님은 하나님주의(Godism)의 기치아래 모든 활동을 「하나님에게로」라는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선생님은 종교개혁운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하십니다.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정과 心情을 제대로 체휼하여 그 바탕 위에서 참사랑을 실천할 것과 예수님의 진정한 소원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실과 아울러 실감있는 신앙체험을 통해 참된 신앙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유태교의 율법주의적 신앙태도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문선생님의 새로운 성서해석은 이제는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문선생님은 공산주의 사상을 포용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인류구원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국제승공연합과 CAUSA 활동을 통해 이를 끌어들이어 하나님주의 활동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남미, 서유럽 지역에서는 국가지도 이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1968년 한국에서의 구국세계대회에서도 60개국의 젊은이가 구국세계대회 석상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피흘리겠다는 결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종교연합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파간의 이해와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초교파 기독교협회를 창립 활동하게 하고 있으며 국제종교재단, ICPA, ICISA 등을 통해 종교연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종교재단(ICF)을 통해서 전세계의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종교간의 대화와 일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A. Toynbee나 P. Tillich는 종교를 文化의 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일치야말로 하나의 세계를 정초하기 위한 기초작업인 것입니다.

넷째, 학술 및 예술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절대가치의 추구라는 최고의 주제를 내걸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권위있는 세미나인 국제과학통일회의(ICUS)를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평화교수협의회(PWPA)는 세계평화를 위한 제분야의 학술연구를 위한 단체로서 한국에만 1천 2백여 명의 회원을 가진 최대의 학술단체로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춘 사상 최대최고의 세계 백과사전을 집필하고 있으며, 700페이지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월간지 「The World and I」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리틀엔젤스 예술무용단을 비롯한 수개의 무용단, 뉴욕시 심포니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수개의 악단 및 오페라단, 그리고 합창단 그리고 One Way Production이라는 영화사 등은 실로 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문선생님의 또 다른 면목입니다.

다섯째로 복지사회실현을 위한 경제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통일교회의 경제활동은 통일원리의 이른바 만물복귀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상천국 건설의 활동이며 복지사회구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분야에 걸쳐 필요한 것으로 특히 국가가 시행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Washington Times」는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신문으로 성장했으며 뉴욕트리분지, Noticias del Mundo, 신문, 기타 수종의 잡지는 미국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선생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의구심의 생깁니다. 문선생님을 보는 시각에 따라 문선생님은 정치가가 아니면 재벌총수, 또는 종교지도자, 또는 사회사업가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선생님의 활동의 일단을 통해서 보더라도 문선생님은 어느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관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선생님은 사람에 관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으로 「비뚤어진 인간을 바로잡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신문화활동

다시 말해 문선생님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최고의 철학자 헤겔은 철학이 완수해야 할 궁극적 과제는 신을 규명해 내는 일이라고 말했으나, 그 일이 문선생님에 의해서 달성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됩니다. 철학이 갖는 방법론적인 범위에서는 아마도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논리적 실체적 지각 또는 사유만이 신을 바르게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관념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신을 체험하는 실감신앙을 중요시 합니다. 신은 靈的인 존재인 동시에 靈은 인간의 육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통일교회의 활동의 일부를 말씀드렸으나 그것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참사랑을 실천하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唯一神으로 믿으므로 하나님주의는 統一主義(Unificationism)로 직결되며 이 사상은 기독교통일, 종교의 통일, 사상의 통일, 문화의 통일(신문화운동) 등으로 연결됩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전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구상한 국제고속도로 계획도 전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 것이며 국제합동축복식은 전 세계의 오색인종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완전히 하나되게 하며 인종차별로부터 오는 일체의 갈등을 제거하여 한 가족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며 CAUSA활동도 전 세계에 확산하여 사상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모든 분야에서 통일이라는 상황을 현실화시키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준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의 제활동은 綜合文化運動으로서 역사상의 모든 문화 내용을 총결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선생님의 사상과 이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총결산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선생님은 보는 시각도 일면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多角的이어야 할 것입니다. A. Toynbeen가 파악한 것처럼 하나의 文明圈을 향하여 역사가 진행된다면 그 하나의 文明권의 축이 바로 통일교회를 발상시킨 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대와 경외심을 갖고 통일교회를 주시하면서 역사의 추이에 촛점을 맞춰봅시다. 진리는 多數나 傳統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 있어서도 A. Toynbee가 말한 바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文明은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2천년의 기독교의 전통에서 창조적 소수자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 통일교회요,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그 소수자는 남다른 고뇌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같이 통일교회는 이 민족과 교회로부터 필설에 담을 수 없는 꾀박과 조소와 멸시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필연적으로 전개될 역사의 진행을 외로이 지켜보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 바탕을 둔 하나님주의라는 理念에 대한 절대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